

# “직업처럼 글쓰는 게 꿈... 소설 700편 써 보겠다”



광주의 젊은 소설가 정용준(30)씨가 국내 유명 출판사 중 하나인 '문학과 지성사'에서 첫 소설집 '가나'를 내며 새로운 작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 많은 작가들이 등단 후 제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풍토와는 달리, 정씨는 등단 2년여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씨는 조선대 러시아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수료했으며, 200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뒤 '문학'과 '사회' 겨울호 '선'

이 흐르는 배경은 상처와 외로움이다. '굿나잇, 오블로'는 몸무게가 550kg인 젊은 여성이, '가나'는 죽은 아랍인 선원이, '떠떠떠, 떠'는 실어증을 앓는 놀이공원의 직원인, '벽'은 섬의 열정으로 남치매 처참한 폭력과 노동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몸과 마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설에 많이 등장해요. 하지만 그들은 내면에 단단함을 지니고 있어요. 동정이나 연민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아니고 '사, 사, 사아, 아, 아아, 아아아, 라라, 라라라라, 아, 아아양, 해.'라고 말하는 말더듬이의 마지막 대사는 이 소설집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잘 보여준다.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랑은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과거의 경험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 사랑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가 소설을 쓰게 된 것도 첫사랑처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전방 부대에 근무할 때, 선임병이 내무반에 두고 간 소설책을 읽으며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

“소설은 지독한 사랑 같아요. 나이가 차서 연애를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이 맞아서 들어와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더 좋아 거절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그 무엇 같아요.”

그는 올 겨울 첫 장편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장편의 주제도 여전히 사랑이다. 배경은 땅 속 세상, 얼음의 나라 등 다소 환상적이지만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 곳곳에 숨어 들 작정이다.

“어려서부터 저를 괴롭혔던 불면이라는 삶의 나쁜 조건은 글쓰기에는 최고의 조건이 됐습니다. 평생 700편의 소설을 쓰고 싶어요. 공무원처럼 충실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작업하고, 식사하고, 직업처럼 글을 쓰는 게 꿈입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신예작가 정용준 첫 소설집 '가나' 출간

### 등단 2년만에 젊은 작가상·문학창작사업 선정

### 올 겨울 장편 도전... 주제는 인간의 따뜻한 사랑



택 짧은소설'에 작품 '벽'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작품 '떠떠떠, 떠'로 문학동네 출판사가 주관하는 '젊은 작가상'과 작품 '가나'로 문학과 지성사가 주관하는 웹진문학상의 각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등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서울문화재단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2011년 문학창작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번 소설집에는 등단 이후 여러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담았다. 이들 소설에 한결같

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총만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의 사람들 내면의 단단함'을 소설 속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그리고 있다. '떠떠떠, 떠'의 주인공은 열 한 살 때부터 실어증을 앓았다. 선생님이나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떠, 떠, 떠...'란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놀이 공원에서 사자의 털을 쓰고 일을 하는데, 함께 일하는 간질을 앓은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가슴 아픈 사랑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눈물겹다. 공연 도중 발작을 일으킨 여인을

## 알림

###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12월 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 접수마감 : 2011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 062-220-0645)

####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된 경우 당선 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2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 ‘이모그래피’ 붓으로 그려낸 아름다움

허희태 '붓 예술 50년' 12월 3~8일 서울 한가람미술관

먹의 번짐과 스미, 글이 만들어 내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모그래피'(Emography)를 만들어 낸 서예가 무산(茂山) 허희태씨가 오는 12월 3일~12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그림을 뜻하는 그래피(graphy)의 합성어인 이모그래피는 전통서법을 바탕으로 개척한 문자예술이면서 동시에 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붓 예술 50년'을 주제로 큰 붓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획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신작을 선보인다. 한 번의 붓질로 시원스럽게 써내려간 획의 기운과 질감이 잘 나타난 작품들이며, 서예와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묘한 울림을 준다.

순천 태생인 그는 지난 1973년 중학생 신분으로 한·캐나다 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서예부문 최고상을 받았으며, 지난 1975년 금고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어려서부터 다양한 전시회를 개

최했다. 또 대한민국서예대전 대상을 수상했고, 국전심사위원과 추천작가를 역임했으며 이모그래피를 유명 가구 디자인과 골프채 광고에 활용하는 등 서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문의 02-580-13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心行'

## 광주시립합창단 신임 지휘자에 이어진씨

### 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광주시립합창단 신임 지휘자로 이어진(40)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내정됐다.

광주시는 29일 "지난 22일 임기가 만료된 구천 지휘자 후임으로 이어진씨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9일 광주시립예술단체 총단장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문회의를 열고 각계 추천을 받은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씨를 신임 지휘자로 내정했다.

이씨는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광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

했다. 특히 2008년에는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고 참가한 제5회 세계합창올림픽(오스트리아 그라츠) 민요 부문에서 그랑프리(1등상)를 수상했으며 한국합창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지휘자상'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맡아왔으며 'Fly to wish', '알을 품은 도시'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해금으로 만나는 클래식 감동

김선임 독주회, 12월 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 '해금으로 듣는 클래식 음악'

해금 연주자 김선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씨가 6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상설 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의 주제는 '클래식 콘서트'.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비탈리의 '샤콘느',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와 '투우사의 노래' 등 클래식 음악을 전통악기인 해금으로 들려준다.

김씨가 직접 편곡 작업을 진행했으며 피아니스트 강숙향씨와 해금연주자 강아라씨



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국악과를 거쳐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씨는 전남대·전북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문의 062-350-699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www.geumsoojang.com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예약 및 문의 : 062)228-4711~2 대표전화 :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19:00 입장 및 식사
- 20:00 디너쇼
- 21:40 퇴장 (롤케익 증정)